

##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 3강 모세의 소명

#### 출애굽기 3장

동족을 치는 애굽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주했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여, 양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갔다.

출애굽기 3장은 목자로 양을 치며 살다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 1.1 하나님의 언약

모세가 호렙 산에 올라오는 모습은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웨의 모습을 보여준다(출 3:4).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문구는 소위 “언약 공식”에 등장하는 것이다. 언약 공식이란 출애굽기 6:7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 측면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출애굽기 3:7에서 눈에 띄는 문구가 보인다. 보라 “분명히 보고”라는 것이다. 히브리 성서는 한글 성서와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표현을 중복하여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는 Figura Etymologica라고 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보고 또 보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 1.2 새로운 이름 아웨

고대에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신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14에는 “아웨 이레”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아웨가 준비하리라’ 혹은 ‘아웨가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문한다. ‘만약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출애굽기 3:14에서 자신에 대해 진술한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서는 다른 한글 번역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는 것과 “나는 곧 나다”.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 이다”가 좀더 맞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명칭

이 히브리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LXX (ἐ γώ εἰμι ὁ ὤ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두 신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개역개정에는 신명이 '명사'로 서술된 반면, '새번역'에는 '동사'로 서술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의 속성과도 연결된다. 본문은 '되다' 혹은 '있다'는 의미를 갖는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동성"과 "활동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정체된 분이 아니라, 늘 활동하며, 움직이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정의될 수 없으며, 어떠한 형상에 묶어둘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자율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신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준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곧 나다"가 하나님의 역동성, 활동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제시하는 가장 가까운 본문은 어디인가?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명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출 3:12).

하나님이 제시한 '나는 곧 나다' 라는 신명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과 관련하여 익숙한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 이다. 하나님의 역동성과 활동성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시는 것에서 드러난다.

출 3:14	나는 곧 나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출 3:12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흐예 임마크)



##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출 4:3), 품에 넣었던 손에 갑자기 문둥병이 발하였다(출 4:6). 나중에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나일 강 물이 핏물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출 4:9).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 이러한 능력은 사람들로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모세의 본질적 기능인가?

출애굽기 4:10-11에서 갑자기 모세는 자신이 ‘혀가 둔한 자’라고 진술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13절). 이 본문에서 12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출애굽기 3:12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를 표현하는 문구가 출애굽기 4:12에서 다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네 입과 함께”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뵤호레티카 아쉐르 테다베르) 는 문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다. 특별히 “가르치다”(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용어가 바로 ‘토라’이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목회자’라는 자리가 그를 권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철저하게 ‘토라’ 즉 계시된 말씀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